

호세아 9 장

➤ 들어가기

오늘 살펴보는 호세아서 9 장은 전장의 우상숭배와 거짓 예배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임하게 될 것이라 선포하면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비참하게 나타날지를 예언하였습니다.

1.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언하는 호세아 (1-9 절)

1) 호세아 선지자는 타작마당이라 하여도 ‘기뻐하며 뛰놀지 말라’고 선포하였습니다. (1 절)

-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의 날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기쁨과 감사의 날!
 - 그러나 호세아는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행음하였다고 책망!!
 - 곧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을 숭배하며 범죄하였다는 것!
(참고로 가나안 원주민들은 바알이 토지의 비옥함과 농작물의 풍요를 준다고 믿고 숭배)
- 참고로 하나님은 호세아 2 장 8-10 절을 통해 이와 같은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먼저 지적하신 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음!
 - 호세아 2 장 8-10 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려,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 들 시기에 도로 찾으려,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삼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 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2) 하나님의 심판 날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 (2-6 절)

- ①. ‘타작 마당이나 술 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 (2 절)
-> 물질적인 축복들이 사라지고 황폐하게 될 것!!
- ②. ‘여호와와 땅에 거주 못하며,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앗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 (3 절)
 - ‘여호와와 땅’ = ‘가나안 땅’,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언약의 땅!
그런데 그 땅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될 것을 예언!!
 - ‘애굽으로 다시 가고’는 앗수르의 침입을 두려워한 백성들이 애굽으로 도망갈 것을 예언!
 - ‘앗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는다’는 대부분의 백성들이 앗수르로 끌려가 종살이하며 살게 될 것을 구체적으로 예언하신 것!
 - 참고: 3 절에 대한 칼빈(J.Calvin)의 견해.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란 말은 율법상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음식을 먹는다는 말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선민으로서 특권과 거룩성을 상실한 채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과 똑같은 상황에서 살게 될 것을 의미하신 것!’

- ③.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4 절)
-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것’은 아침과 저녁으로 소제와 함께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공식적인 제사 곧 ‘전제’를 의미!!
 - 그런데 앗수르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이와 같은 공식적인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될 것이란 예언!!
 - 뿐만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할찌라도,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
- => Why? 저들이 드리는 예물은 다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기 때문!!’(4 절 b),
- 참고로 율법은 초상집, 곧 죽은 자의 집에 들어가는 자와 그곳에 거하는 자, 그곳에 있는 그릇이나 시체를 만진 사람은 다 7 일 동안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 (민 19:14-16)

- ④. 따라서 호세아 선지자는 5 절 말씀을 통해, 과연 앗수르에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일과 여호와와 절기’에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반문하였음!!
- => 이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써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고통을 깨달으면서 하는 절망적인 물음!!

- ⑤. 애굽으로 도망친 백성들은 그곳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 (6 절)
- 6 절: ‘…,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놉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 ‘모으고’에 해당하는 히/원 ‘태감침’은 ‘시체를 모으다’는 뜻!!
 - ‘놉’은 ‘멤피스(Memphis)’라고도 불리는 고대 애굽의 수도로써 우상의 본거지였음.
 -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도망해 본들 다 패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신 것!!

- 3) 호세아 선지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 날이 속히 이르렀음을 알라고 선포하였습니다. (7 절)
- 이것은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하고 회개와 심판에 대한 참선지자들의 경고를 하찮게 여긴 것을 깨닫기를 바라며 외치는 선지자의 선포!!
- 4) 특별히 호세아는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참선지자들을 대하였는지를 지적하면서 저들의 죄악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7b-9 절 a)

- 우선 7-9 절의 말씀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글 새번역 성경을 참고!
7. 이스라엘은 알아라. 너희가 보복을 받을 날이 이르렀고, 죄지은 만큼 벌받을 날이 가까이 왔다. 너희는 말하기를 "이 예언자는 어리석은 자요, 영감을 받은 이 자는 미친 자다" 하였다. 너희의 죄가 많은 만큼, 나를 미워하는 너희의 원한 또한 많다.
 8. 하나님은 나를 예언자로 임명하셔서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예언자가 가는 길목마다 덮을 놓았다.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마저, 너희는 예언자에게 원한을 품었다.
 9. 기브아 사건이 터진 그 때 못지않게, 이 백성이 더러운 일을 계속한다. 주님께서 이 백성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릇된 행실을 다 벌하실 것이다.

- ①.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7 절 b)
 - 곧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선지자를 어리석은 사람이나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율법을 멸시하고 끝까지 악을 행함!!
- ②. 에브라임 곧 북이스라엘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세우신 참선지자들을 넘어뜨리고 잡으려고 길목마다 덫을 놓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 안에서까지 저들을 죽이고자 노력함! (8 절)
- ③. 기브아 사건이 터진 그 때 못지않게 악을 행함! (9 절)
 - 기브아 사건은 사사기 19 장 10 절 - 20 장 48 절을 배경으로 한 사건.
 - 곧 사사 시대에 베냐민 땅 기브아에 사는 비류들이 그곳을 방문한 한 레위인의 첩을 강간하고 죽인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인과 베냐민 지파가 전쟁까지 하게 되고, 결국 600 명을 제외한 베냐민 지파 전체가 전멸당하는 비극적인 사건을 말함.
 - 그런데 당시 호세아 시대, 곧 여로보암 2 세때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그 시대 못지않게 악하고 타락했다는 것!!
 - 따라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저들의 악을 다 기억하시며 그 죄를 벌하시겠다 선언! (9 b)

2. 북이스라엘의 배신을 책망하시는 하나님 (10 절)

1)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하실 때,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이’,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 같이’ 대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 절 a)

①.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이’
 -> 물도 찾기 힘든 광야에서 포도를 만났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고 즐거움인가?

②. ‘무화과나무에서 첫 열매’
 -> 무화과나무의 첫 열매는 당시 약용으로도 쓰일 만큼 귀한 상품(上品)으로 취급!

- 곧 하나님은 맨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대하실 때 이처럼 하나님의 큰 기쁨으로, 가장 귀한 상품처럼 여기시면서 아낌없이 사랑하셨고, 지키시며 보호하셨다는 것!!

2)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리며’ 그 우상처럼 가증스러워졌다고 책망하셨습니다. (10 절 b)

- ‘바알브올’이란 ‘브올(지역)의 바알’이란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바알을 찾아가 섬기고, 이스라엘로 모셔와 숭배하며 악행을 저질렀음을 의미!!

3.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심판 (11-17 절)

1)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게 될 것! (11-12 절)

- 우선 '에브라임'이란 뜻은 '창성함' or '열매가 많다(fruitfulness)'는 뜻!
 - 참고로 야곱은 열두 지파 족장들을 축복할 때, 요셉에게는 풍요로움의 복을 빌어주었는데, 이때 그의 아들인 에브라임 족속이 풍성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함!
 - 모세도 '에브라임은 만만이요 므낫세는 천천이로다'(신 33:17)라고 하면서, 에브라임 지파의 강성함을 예언하고 축복함!
-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에브라임의 영광이 이제 새처럼 날아가 사라질 것이라고 저주!!
 -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영광이 사라진다고 하셨나요?
 - 바로 자녀의 축복이 사라지고, 자손의 멸망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 저주!!

2) '에브라임'의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이끌어 가실 것! (13 절)

- 우선 하나님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다'고 말씀하심!
 - '두로'는 '여린 나무'를 의미함. (참고로 Cev. = 'palm trees'로 번역함!)
 - 곧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처음 보셨을 때는 아름다운 옥토에 심긴 Palm Trees 처럼 좋았다는 것!!
 -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행하는 악한 족속이 되었다는 것!!
- 따라서 하나님은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시겠다고 선포!!
 - 이는 곧 앗수르와 싸우는 전쟁터로 끌어내시고, 저들의 지배아래 죽게 하시겠다는 것!!

3) 에브라임을 향한 하나님의 이 같은 저주의 말씀을 전해들은 호세아 선지자는 에브라임에 아무도 태어나지 않게 해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14 절)

- 14 절 - 새번역 성경 참고
 '주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시오! 주님께서서는 무슨 벌을 내리시고자 하십니까? 아이 배지 못하는 태를 주시고, 젖이 나지 않는 가슴을 주십시오.'
- 곧 호세아는 이스라엘에 자녀가 태어나지 않기를 간구한 것!
- Why? 바로 선지자의 눈으로 하나님의 심판 날을 내다볼 때, 어린 아이들은 물론이고 아직 뱃속에 있는 태아들까지 다 살육 당하게 될 것을 생각하니, 차라리 아이를 갖지 않게 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 한 것!!
- 따라서 14 절은 그 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비참하게 임할 것이란 사실을 호세아 선지자가 증거하고 있는 말씀!!

4)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은 호세아의 간구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5-16 절)

- 그럼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처럼 확고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15 절)
 - 길갈에서 악을 행함! => 곧 뱀엘과 길갈에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을 배신함!!
 - 북이스라엘의 행위가 악함! => 곧 아무리 회개하라고 선포해도 돌이키지 않음!!
 -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들!
 - 더군다나 16 절 주목!!
 - 하나님의 눈에 비친 북이스라엘은 이미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되었던 것!!
- 5) 호세아 선지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리실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17 절)

❖ 오늘 내용을 묵상하면서 결단한 내용이 있다면?

❖ 중보기도 제목 나눔